

日本の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의 虛와 實

日本은 지난 1월 무역상대국들의 압력에 못이겨 石油製品 수입에 부과되는 비관세적 규제요건을 점차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새로 제정된 「석유제품 수입에 관한 법률」은 다분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미봉책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휘발유와 燈油의 수입을 소량만 허용, 그것도 日本의 대규모 무역상사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는 허울좋은 명색일뿐, 세계 제2의 석유소비국인 日本에서 자유경쟁개념은 조금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한 다국적 석유사에 근무하는 거래 중개업자는 日本의 이와같은 조치는 같은 경기에서 같은 선수에게 모자만 바꿔 씌우고 하는 경기와 같아, 외국회사들이 日本 석유제품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日本이 국내석유시장을 해외에 개방했다는 거듭된 주장과 실제와는 너무나 차이가 커 수출지향의 日本경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는 日本의 표면적인 주장에 대한 실제행동의 리트머스적인 시험이 될 것이다. 中東 산유국들을 비롯한 아세안(ASEAN) 제국, 中共 등 많은 나라들이 日本의 시장 개방정

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日本과 석유공급 관계나 기타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다.

通産省의 내심

형식적인 조치로 日本의 석유제품시장은 전반적으로 개방되었다. 따라서 법적인 규제, 쿼터제도 및 특별관세등 제한 조건이 사라졌다. 日本의 휘발유가격은 개방정책 이후에도 세계 어느나라 보다 높고 석유제품 수입물량은 최소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日本이 세계 최대 시장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개방정책이 완전한 의미의 시장개방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通産省은 휘발유 수입규제를 완화키 위해 石油製品 수입업무를 日本내 정유사에 국한시키고 공식적으로 외국회사와 日本상사들을 이에서 제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화 조치 이후 첫 휘발유 수입은 거의 다 日本 무역상사들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日本내 정유사들은 가격이 파격적으로 낮지 않는 한 석유제품수입을 꺼리고 있다. 이는 이들의 석유제품 수입물량이 通産省이 책정해준 정제 쿼터 물량에 불리하게 산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시장개방조치는 형식적인 제스처일뿐 실체는 종전과 별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石油製品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수입물량 비율로 볼때

● 石油製品 수입자유화 조치이후 수입물량 비율로 볼 때 등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많은 한편, 거래형태도 종전과 똑같이 무역상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등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많은 한편 거래형태도 종전과 똑같이 무역상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상사들은 그들은 다만 해외정제업자들을 대항해서 거래를 주선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日本内 정유업자들은 해외거래업자들과 밀착관계를 맺음으로써 국내무역상사들과의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어서 石油製品 수입활동은 무역상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편 日本 전체 原油 공급의 약 6%를 담당하고 있는 中共은 점증하는 對日本 무역적자폭 때문에 장기적으로 中·日 경제협력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지난 해 59억달러였던 中共의 對日本 무역적자는 금년에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것은 日本의 中共원유 도입량이 불변 상태인데, 油價는 지난 해의 4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역불균형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휘발유등 中共 제품의 수입규제를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석유제품의 對美 수출이 수입국의 환경적인 규제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中共은 크게 환영할 것이다.

아세안(ASEAN) 제국들 역시 日本의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감소추세에 있는 日本의 原油도입물량에 불평을 하는 한편, 아시아 제2 경제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페르샤만으로부터 석유제품의 대량 방출이 日本의 조치 때문에 싱가포르시장에 범람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日本内 정제업자들은 동남아산 原油를 제쳐놓고 北海 및 中東 등지로 부터 동급의 원유를 구매하기 시작하는데 이어 석유제품 수입 개방 정책이 발표된 후 첫 휘발유 수입이 싱가포르로부터

가 아니라, 하와이와 中東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함에 따라 日本은 또한나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8년까지 페르샤만 산유국들의 정제능력은 88만 B/D 수준으로 증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유공장 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日本으로서는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이 日本을 제외한 인접 아시아국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는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그것은 日本 석유업계가 극도로 분열되어 혼란한 상태인데다 석유제품 수입 자유화조치는 관료적인 성격이 풍기는 형식적인 개방조치이기 때문이다.

日本 석유업계를 일별해 보면, 대체로 通産省 및 정유사들은 제품수입에 현상유지 노선을 걸으면서 정제시설 현대화와 초과정제능력 처분에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극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 소매업체들과 외무성은 점진적인 수입개방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무역상사들은 거래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보장되고 코미손이 확보되는 한 중립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日本에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대한 법적인 규제조치는 거의 없다.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EEC나 美國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 기준보다는 낮은 편이고 국내 소비용으로 도입되는 연료비의 유행함유량 최대·최소 규제를 제외하고는 물량적 제한조치는 없다. 다만 原油의 제수출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日本이 수입원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석유류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美國의 제반규제에 직면할 것이다. 通産省은 회계년도 초에 국내

●日本의 精油會社들은 수입해오는 휘발유 양만큼 휘발유생산을 줄이도록 通産省의 통제를 받고 있어 가격이 파격적으로 낮지않는 한, 수입을 촉진할만한 인센티브가 없다●

무역상사, 석유사, 석유화학회사 및 정제업자들로 하여금 수요예측치를 제출토록 하고 임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회사들이 수입할 수 있는가에 실질적인 규제가 된다. 왜냐하면 通産省이 정유공장의 가동율, 휘발유 생산수준을 통제하고 수입면장의 승인, 확장사업 및 정유시설 고도화 승인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르면, 정유회사들은 수입해오는 휘발유 양만큼 휘발유 생산을 줄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파격적으로 낮지 않는 한, 수입을 촉진할만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겠다.

日本 석유업계에서 通産省은 마피아단의 대부와 같이 군림하고 있다. 일단 제안을 하면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通産省이 막강한 힘을 과시한 좋은 예가 하나있는데 바로 라이온스 石油 사건이었다. 日本의 소규모 휘발유 소매업체인 라이온스 石油가 1985년초 싱가포르産 휘발유 125만배럴을 수입하려 하자 通産省은 즉각 은행에 압력을 넣어 자금의 신용대부를 거절토록 조치하고 아울러 싱가포르측에 휘발유 판매를 거부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1985년말에도 발생했는데, 이때도 라이온스 石油가 필리핀, 美國등으로 부터 휘발유 수입을 시도했다.

日本의 石油産業은 이추 복잡하다. 석유거래는 일관조업 석유회사가 아니라 무역상사가 지배하고 있고 무역상사들은 계열 정유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共同石油, 出光興産과 같은 반 독립계 회사가 있는가 하면 日本石油과 같은 일관조업석유회사도 있으며 무역, 정제, 석유화학에 진출한 회사도 있다(스미토모상사). 또 정제업에 소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셀, 액슨, 모빌, 칼텍스 같은 메이저들도 진출해 있다.

잉여 정제시설 해체

日本의 정유회사들은 필요에 의해서 通産省의 지침을 잘 받아들인다. 그들은 그들의 노후된 정제시설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에 반해 국제석유회사들은 通産省의 지침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그들이 日本에서의 정제이익이 휘발유제조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이다. 현재 메이저들이 시장 점유율은 비록 작으나, 그로부터의 이익은 평균이상의 수준이다.

정유회사들은 정제시설 고도화와 잉여정제시설 처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1979년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정제능력의 많은 부분이 유휴상태로 지속되어 왔는데, 정유회사들은 시설을 해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설을 정갈하게 유지 보관, 수요증가에 대비해 오고 있다. 日本의 정제능력은 지난 6년동안 거의 17% 감축되어 현재는 490만 B/D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이에 비해서 서유럽은 같은 기간 동안 30%를 감축했고, 美國은 3분의 1 이상을 축소 처분했다.

日本의 석유 관계자들은 현재의 석유시장 침체현상은 앞으로 호경기 시장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가 하면, 비록 소수이긴 하나 석유산업을 현대화 하는 유일한 대안은 세계시장에 개방, 경쟁에 직면토록 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나가소네 首相은 유명한 무역자유화 조치에 즈음한 연설에서 일본은 최선을 다했다고 공언한 일이 있다. 그러나 전세계에 산재한 日本의 석유거래 파트너들은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5/15〉